

홍명보호, 오늘 9월 A매치 미국·멕시코 원정 명단 발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집중하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내일 9월 A매치 명단을 공개한다.

홍명보 감독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에 나갈 축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한다.

'FIFA랭킹 23위' 한국은 내달 7일 오전 6시(한국 시간)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15위' 미국과, 10일 오전 10시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 파크에서 '13위' 멕시코와 두 차례 맞대결을 벌인다.

홍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9월 A매치에 임하는 각오와 축구대표팀 명단 구성 배경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축구대표팀은 내달 1일 오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난다.

리그 시즌이 한창인 만큼 출국 전 소집 훈련은 진행하지 않는다.

본진은 홍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K리그 중심 국내파 위주로 꾸려진다.

손흥민(마이애미),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해외파들은 미국 현지에서 합류한다.

홍명보호는 미국과 멕시코를 차례로 상대한 뒤 11일 귀국할 예정이다.

축구대표팀이 지난 6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종료 이후 3개월 만에 최정예로 소집된다.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울버햄튼), 이재성(마인츠), 황인범(페예노르트), 설영우(스베츠다) 등이 모두 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규(헝크), 양현준(셀틱), 양민혁(포츠머스), 배준호(스톡크), 이한범(미트윌란) 등 어린 선수의 발탁 여부도 관심이다.



25일 오후 2시 축구회관서 기자회견 진행 주장 손흥민 비롯 최정예 멤버 소집 예상 내달 1일 출국... 7일 미국·10일 멕시코 상대

홍 감독은 한국과 독일 이중 국적으로 최근 발탁 가능성이 제기된 엔스 카스트로프(뮌헨글라트바흐)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달 2025 동아시아 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안)에서 진행한 국내파 육성 가리기의 결과도 나온다.

프로축구 K리그를 누비는 선수들 가운데 어떤 새 얼굴이 태극마크를 달지 기대

된다. 이번 9월 A매치는 월드컵 개최지에서 개최국들과 맞붙는 귀중한 스팅 기회다. 미국은 손흥민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시절 옛 스승인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지휘하고 있다.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크리스티안 풀리시(AC밀란), 웨스턴 맥케니(유벤투

스), 지오바니 레이나(도르트문트), 크리스티안 리치(팔리스) 등이 주요 경계 대상으로 꼽힌다.

멕시코는 1994 미국 월드컵부터 2018 러시아 월드컵까지 7회 연속 16강에 진출했던 북중미 강호다.

이강인의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 시절 은사이자 과거 일본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하비에르 아가레 감독이 팀을 맡고 있다.

두 팀은 지난달 2025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골드컵 결승에서 맞붙었는데, 멕시코가 미국에 2-1 역전승을 거두며 통산 10번째 우승을 달성한 바 있다. /뉴스

영양국제자동차경주장서 '모터피아 페스티벌'

30~31일 듀에슬론, 서킷텍스 등 즐길 수 있어

영양군(군수 우승희)이 이달 30~31일 영양국제자동차(F1)경주장에서 '2025 영양 모터피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체험형 문화 축제로, 모터스포츠와 레저를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로 가족·친구·연인이 함께 즐기는 장을 선사한다.

사이클과 러닝을 결합한 '듀에슬론', 전문 드라이버와 함께 실제 서킷을 주행하는 '서킷텍스 체험', 서킷 온 가족 달리기, 물놀이 에어바운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나아가 튜닝카·바이크 전시, 캠핑존·푸드트럭 운영, 레크레이션과 행원권 추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된다.

듀에슬론과 캠핑존은 사전 유료 예약으로 즐길 수 있다.

행사장 입장은 무료고, 일부 프로그램은 행사 홈페이지(kiccrace.com)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영양군은 안전한 축제를 위해 행사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 교육



과 질서 유지로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재진 영양군 기업지원과장은 "자동차경주장 서킷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모터스포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축제다.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영양 대표 축제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영양/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안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티인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공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흥 운암 3단지 재건축주택사업조합 | 시흥 GS건설 | (주)한원/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시, 세계양궁대회 인권친화 국제대회로 연다

인권영향평가단·장애인선수 합동으로 인권차별요소 현장 점검
화장실 개선·이슬람 기도실 마련 등 개선사항 즉각 조치 나서
장애인 접근성·차별 금지 등 분야별 점검... 모니터링단 운영도

오는 9월5일 개막하는 '광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가 인권친화적 국제대회로 치러진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인권친화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인권영향평가단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 활동에 나섰다.

광주시는 인권영향평가단과 함께 최근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펼쳐지는 광주국제양궁장과 광주월드컵경기장 등 경기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평가단이 제시한 개선사항들을 대회조직위원회에 전달해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영향평가단은 광주시 인권평화와, 상임임브즈맨을 비롯해 장애인, 다문화, 편의시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활동가들로 구성됐다. 이번 점검은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계승한 인권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살려 모든 참가자와 관람객이 차별 없이 대회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점검에는 인권영향평가단과 함께 광주장애인양궁협회 소속 선수들이 직접 참여해 ▲차별 금지 ▲장애인 접근성 ▲긴급대응 체계 ▲환경 안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출입로, 주차장, 화장실, 도핑실 등 기존 시설을 꼼꼼히 살폈다.

점검 결과, 평가단은 ▲중증장애인 선수 식음료 보조도구 제공 ▲모두의 화장실 ▲이슬람권 선수 기도실 ▲응급 의료 통역서비스 마련 등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 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장애인 화장실 표지판과 비상벨 설치, 주차장 표식의 한 국산업표준(KS) 기준 적합성 확인 등 세부적인 개선 필요 사항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평가단의 의견을 즉시 반영해 대회조직위원회와 대회지원단에

개선사항을 전달, 대회 전까지 모든 인권친화적 시설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광주시는 특히 대회 현장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평가단과 재점검을 실시하고, 대회 기간 중에는 인권전문가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해 실시간으로 인권차별 요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에 맞춰 광주에서 평화의 메아리가 전 세계로 퍼질 바라는 마음을 담아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가 함께 열려 진정한 사회통합의 장이 될 것이다. 광주는 5·18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권도시로서 이번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모든 참가자와 관계없이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인권친화적 국제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